

유네스코, 신안군 전체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신안 흑산도



홍도



비금도

페루서 열린 이사회서 확대

지역 주도 생물다양성 보전

특산물 인기·소득 증가 효과

유네스코가 신안군 전체를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앞서 지난 2009년에 지정된 흑산도와 홍도·비금도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생물권보전지역이 군 전체로 확대된 것으로,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전북 고창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유네스코에서 선정하는 3대 보호지역(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중 하나다. 22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유네

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MAB)한국위원회 사무국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최근 신안군 전체를 신안도에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안을 최종 승인했다.

유네스코는 페루 리마에서 지난 19일 열린 제28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MAB)' 국제조정이사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을 내렸다.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MAB, Man And Biosphere programme)'은 생태계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색을 목적으로 하는 유네스코 주관의 정부 간 프로그램이다.

지난 2009년 흑산도, 홍도, 비금도 등 신안군 일부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지역에서 판매하는 소금, 시금치 등의 지역특산물에 인기를 얻으면서 주민 소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

과를 거두고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신안군은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보전지역 확대 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확대 지정을 통해 신안군 생물권보전지역은 기존 573.1km에서 3238.7km로 확대되었다. 신안군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이번 확대 지정으로 신안군의 경우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면서 전체의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내 생물권보호지역은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1982년),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2002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2010년), 고창생물권보전지역(2013년) 등이 있다. 세계적으로는 120개 국가가 유네스코 MAB(인간과 생물권계획) 프로그램에 참

여하고 있으며, 669개의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돼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신안군의 생물권보전지역 확대는 지역사회의 주도로 국제적인 보호지역의 대표성을 잘 살려서 보호지역의 지정과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가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간과 생물권계획(Man And Biosphere programme, MAB)은 1971년 유네스코 주관으로 시작된 정부간 프로그램으로, 생태계보전과 자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생물권보전지역(BR, Biosphere Reserves) 사업을 비롯, 생물다양성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 훈련, 교류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공사장 소음으로 꿀벌 떼죽음...시공사 책임

분쟁위, 1700만원 배상 결정

날개짓 통한 의사소통 방해

공사장 발파 소음과 진동으로 겨울잠 자던 꿀벌이 폐사한 것과 관련, 시공사 등이 1700여만원을 양봉업자에게 배상 하라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22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분쟁위)에 따르면, 분쟁위는 강원도 양양에서 양봉을 하는 A씨가 인근 저수지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봤다며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5억15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최근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양봉장 인근 남서쪽 260m 지점 공사장에서 발파 소음과 진동이 이어져 벌이 폐사하고 생산된 꿀의 품질이 떨어지는 등 피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분쟁위는 공사장 소음(최대 67.8dB)과 진동(평균 0.1cm/sec)이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소음(최대 60dB), 진동(0.02cm/sec)을 초과했다고 인정하면서 전체 350여 통 중 10% 정도에 소음, 진동 피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일정 기준이 넘는 소음과 진동은 날개 진동의 강약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꿀벌의 활동을 방해해 벌꿀 생산, 산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겨울철 꿀벌은 벌통 안에서 공 모양(봉구)을 형성해 날개짓을 하며 열을 일으켜 생존한다. 소음, 진동으로 이 공 모양에서 떨어져 나간 개체는 저체온증으로 죽는다.

분쟁위는 그간 공사장 소음·진동, 도로 차량소음, 공장 대기오염물질 등을 양봉 피해의 원인으로 인정해 배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6월 경기도 평택시 공사장 발파 진동으로 꿀벌이 폐사한 사건에서도 3300만원 배상 결정을 내렸고, 같은 해 10월에는 충남 예산 참숯공장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로 인한 양봉 피해를 인정하고 3500만원 배상 결정을 하기도 했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은 소음, 진동으로 인한 양봉 피해 가능성을 간과하고 공사를 하는 사례가 많다"며 "공사현장 주변의 양봉 현황을 파악하고 충분한 피해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2985m...국내 가장 깊은 바다는 울릉도 '우산해곡'

우리나라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동해에 위치한 울릉도 북쪽의 '우산해곡'으로 깊이가 2985m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라산 높이 1950m의 1.5배에 이른다. 그렇다면 바다의 깊이는 어디서부터 잴까.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지난 3년간 목포, 인천, 부산, 속초 등 연안지역 389곳의 해수면을 조사해 지역별 평균 해수면 및 수심의 기준높이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산의 높이는 바다의 평균해수면으로부터 측정하는데 인천 앞바다의 평균해수면이 기준치이다.

바다의 깊이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밀물과 썰물을 관측해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를 기준수준면이라고 부른다. 평균해수면과 기준수준면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안선과 해저지형은 북

집한데다 섬이 많아 조석에 의한 해수면 상승과 하강의 폭이 해역마다 다르다. 동해안은 작고 서해안은 크다. 동해안은 기준으로 남해안은 1.5m, 서해안은 평균 3m 가량 아래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해양조사원 관계자는 "각 해역별로 서로 다른 기준면을 통합해 하나의 면으로 표현한 '연속기분수준면'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연속기분수준면과 최신 위성항법시스템(GNSS)이 연결된 선박에서 실시간으로 해수면 높이를 알 수 있어 선박장비, 해양조사, 해양공사 등 관련산업에 널리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각 지역별 기준수준면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www.kho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형호기자 khh@

야생화 흐드러진 무등산의 봄

무등산에도 봄이 찾아왔다. 무등산의 봄은 복수초를 비롯한 다양한 야생화가 하나 둘 꽃피우면서 시작된다. 매화, 복수초, 버들개지(버드나무 꽃), 히어리, 생강나무꽃, 할미꽃(왼쪽부터 시계방향)과 이를 모를 야생화가 내뿜는 향기는 불철 무등산이 주는 또 다른 매력이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 JB캐피탈 NPL사업협약, 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금융권 근저당권 채권, 개인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락잔금대출 지원담당
☎ 062-383-4987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